

제주사회복지신문

>2016년 5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03호

장애인 차별금지 기본계획 수립

도, 5대 정책 28개 과제 발표... 5년간 총 2143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계획’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달 18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친 이번 계획에는 연간 400억씩 총 2143억이 투입된다.

도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제주’를 비전으로, ‘장애인 차별로부터 인권 보장 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중장기 정책과제를 비롯해 세부 정책들이 정해졌다. 5대

정책과제는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 체계기반 구축 △정당한 편의제공의 실질화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 △다중차별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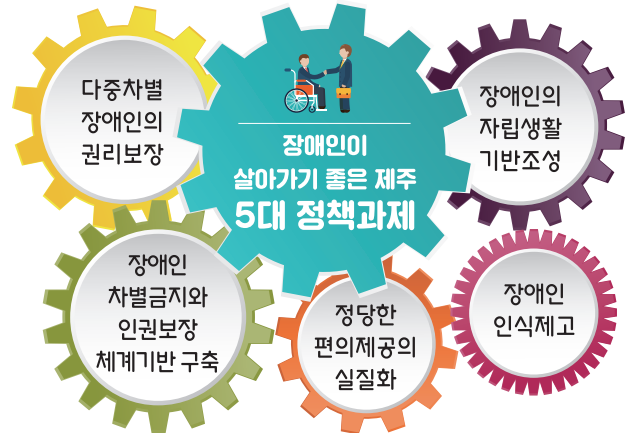
28개 세부과제에는 9개의 신규과제와 19개의 계속 추진 과제가 설정됐다.

신규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인권 보장 부문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운영이 눈에 띈다. 이 기관은 경찰서와 행정의 기초단위인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접수한다. 기관은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장애

인 학대 예방 교육·홍보, 장애인 법률구조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 역할도 맡는다.

학대장애인을 위한 긴급 구조 조치체계도 마련된다. 성폭력, 학대 등의 사건피해 장애인을 긴급 이송하고, 보호·분리할 쉽터를 마련하며,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심리치료도 진행할 계획이다. 형사적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인권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외에도 공공시설 설계 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도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계속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시행된다. 장애인권리 기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도입과 정류장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이뤄진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송차량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장애인의 탈시설을 돕는 체험형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변영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계획의 수립으로 장애인 정책방향이 시혜 관점에서 권리 관점으로 선회하는 계기가 됐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 자활참여자 한마음 대회

제주시가 주최하고 수놓음지역자활센터가 주관한 ‘2016년도 제주시 자활근로 참여자 한마음 대회’가 지난 달 22일 제주시 한경면 일대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및 사업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장기요양기관 10곳 최우수기관 선정

2015년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에서 도내 10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요셉 요양원 △평안전문요양원 △늘푸른노인전문요양원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성이시돌요양원 △성지요양원 △소망요양원 △아노제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제주원

광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립요양원이 제주지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최우수 기관은 기관운영, 환경안전, 권리 및 책임 등 5개영역 88개 지표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이에 위 기관들은 모두 ‘최우수기관’ 현판을 받으며, 이중 규모별로 상위 20%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2016 사회복지아카데미

사회복지 자원개발과정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다양한 자원 개발 방법을 학습하며 현장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 강사로부터 듣는 홍보, 모금, 기업연계의 주제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일정	1차	5.20(금)	매력적인 사회복지 홍보전략 및 최신 홍보 기법들	김재춘 소장
	2차	6. 9(목)	3개월 만에 후원자 2배로 올리는 모금 비법	김재춘 소장
	3차	7. 5(화)	비영리 단체와 기업파트너십 개발 (기업사회공헌 이해 및 다양한 사례소개)	김영채 이사

강사 소개

김재춘 소장 (가치환경경영연구소)

(전)아름다운가게 정책실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보좌관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 이사, 한국모금가협회 운영위원장
엘네스티한국지사 자문위원, 한국장애인재단 배분위원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등

김영채 대표이사

· dk service(다음카카오 자회사)

· 제주꽃(애)기업협의회
(dk, 넥슨 등 제주이주 13개기업 네트워크)

- 교육 신청**
-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교육과정 ‘배움’ 신청 및 교육비 결제
 - 교육비 및 교육시간 등 세부 교육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임현정 사회복지사 064)702-3784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복지공약

강창일·오영훈·위성곤의 약속은 ...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지난달 13일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지역 당선자들이 낸 주요 복지공약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과”

강창일(제주시갑) 당선자는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강 당선자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훈련 인프라 확보 등을 위해 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에 맞는 합리적 건강보험료 부과, 보육현장 지원을 위한 사회적논의기구를 상설화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소득하위 70% 어르신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난임 부부 지원 △제주시노인복지회관 다목적동 시설 개선 등도 약속했다.

“경로당 지원 근거 마련”

오영훈(제주시을) 당선자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경로당도우미와 경로당 주치의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능을 넓히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상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복지 분야 공약으로 누리과정예산의 국가책임화, 자기주도학습센터 확충, 작은도서관 등을 제시했고, 주거복지공약으로 소규모의 공공유지를 공동체 주택으로 활성화, 원도심사업과 연계하는 주택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대”

위성곤 당선자(서귀포시)는 여성농업인 복지제도 확대를 약속했다. 위 당선자는 “여성농민 행복 바우처 제도 전국적 확대,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서비스 농촌지역 할당제 실시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복지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르신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노인일자리 수당 인상, 서귀포노후지원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냈다. 이와 함께, △청년발전기본법 제정 △14세 이하 모든 어린이의 병원비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남성 출산휴가 확대 △국유지 활용 주택공급 확대 등도 제시했다.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지역 사회공헌활동 구심점 필요 공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새누리당)의원실은 지난 달 14일 사회복지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관계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현정화 의원은 “지난 3월 22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및 사회복지계 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그 자리에서 나온 제언사항을 종합해 조례안에 담으려고 하였으나 부족한 부분들

이 있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조례 내용을 다듬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공헌과 관련해 제주에는 구심점이 없어,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모든 사회공헌 활동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많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설치된다면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권
팁&톡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사회복지인권사랑방 064)702-3783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4월 기탁 현황

- ▲금강수산물통=쭈꾸미 32kg ▲금강축산물통=돈육 149kg ▲김치원=김치 20kg ▲꽃비나리는뜨락=떡 171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 3,082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쌀(10kg)20포 ▲서문식품=두부 393모 ▲(주)오뚜기=오뚜기식품 487개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7봉 ▲유진상사=오뚜기식품 3,512개 ▲자연드림 이도점=빵 248봉 ▲제주보리춘=보리빵 400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과티슈 378개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 302봉 ▲행복나눔마트 노형점=비누 216개

5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사전에 알리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보도자료 접수' 게시판에 게재 바랍니다. 문의=702-3784(제주사회복지협의회)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감성손글씨, 캘리그래피 기초과정	• 붓펜을 활용한 캘리그래피 기초 (선연습, 단어, 단문쓰기) • 작품만들기(책갈피, 캘리카드, 캘리양초)	3일~31일 매주 화요일(5회) 17시~19시 협의회 2층 삼다수홀	702-3784
제주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 기념식, 유공자표창, 그룹댄스, 합기도공연 •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만들기, 전통놀이 등	5일(목) 10시~ 제주한라체육관	728-2682
	어버이날 행사	• 기념식, 효행자 및 효실천 · 기여단체 시상 • 다양한 공연, 건강 및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상담	6일(금) 10시~ 제주한라체육관	728-2492
서귀포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 기념식, 유공자표창, 중창단공연, 마술공연 • 먹거리체험, 페이스페인팅, 액자만들기 등	5일(목) 10시~ 제주월드컵경기장	760-6448
	어버이날 행사	• 기념식, 효행자 및 효실천 · 기여단체 시상 • 카네이션달이 드리기, 다양한 공연 진행	6일(금) 10시~ 동홍생활체육관	760-2382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가정위탁의 날 기념캠페인 전개	• 가정위탁 홍보물 배부, 거리상담실 운영, • 가족사진 액자만들기 체험, 아동대상 이벤트 등	22일(일) 11시~17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747-3273



사회복지협의회 2016년 3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90,000	1,94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40,000	340,000
복지사업후원	975,000	3,735,240
푸드마켓후원	3,345,000	3,310,46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고경운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JDCar' 복지용 특장차량 지원합니다

도내·외 휠체어 이용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JDCar' 복지용 특장차량 대여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특장차량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단체)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차량을 대여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외 사회복지시설과 단체, 비영리기관 등이며, 해당 시설(단체)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으로만 이용

할 수 있다. 지원차량은 창립저상승차로프장애인차(중형승합, 2016년식)로 정원은 6명이며, 휠체어는 2대까지 탑승가능하다.<사진>

예약은 차량 이용일 일주일 전 팩스(702-3383) 또는 전자우편(jejubokji

@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운전자격은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1회 최대 2박 3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한편, 사업에 활용되는 차량은 지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사랑의 복지차량' 사업을 통해 지원됐다.



배우 최수종, 제주해바라기센터 홍보대사 위촉

탤런트 최수종씨가 제주 지역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김성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지난 15일 제주한라병원 대강당에서 이은희 제주특별자치도보건복지여성국장, 서범규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가졌다. 홍보대사를 맡게 된 최수종씨는 앞으로

제주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캠페인에 동참하는 한편 공익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게 된다.

제주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24시간 상담과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한편 최수종씨는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인형극동아리 깨비랑, '방귀쟁이 며느리' 공연

장애인인형극동아리 '깨비랑'이 대흘초등학교(4일)와 제주장애인연맹(17일, 20일), 제주교육박물관(20일) 등지에서 '방귀쟁이 며느리' 인형극을 공연한다.

지난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에서 제주도내 최초로 구성된 장애인 인형극동아리 '깨비랑'은 장애인 회원 8명과 비장애인 3명(강사 1명 포함)이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회원 중 7명이 1~2



급의 중증장애인으로 활동에 따르는 제약이 많음에도 매년 인형극교실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 습득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인형극 '방귀쟁이 며

느리'는 전래동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며느리가 방귀로 모든 것을 풍비박산 내 버리고 쫓겨나다가, 커다란 뱀을 방귀로 몰아내 다시 화목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찾아가는 원어민교실 참여기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이번 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교실'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결혼 이주여성이 선생님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원어민 외국어 교실'은 경제적인 이유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더욱 알찬 외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업은 고학년 또는 저학년 등 15명 이내의 소그룹

교육방식을 취하며, 기초회화교육부터 시작해 영어동화책을 활용한 독서지도, 상황 및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영어연극, 클레이와 종이접기 등을 하며 배우는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번 사업에는 외국인 강사 3명이 초빙되며, 영어교육을 우선으로 실시하나, 중국어의 경우도 희망하는 센터가 4곳 이상일 경우 개설될 예정이다.

<문의: 702-3784>

시론·칼럼 모음 '사람의 향기는 말에서 나온다'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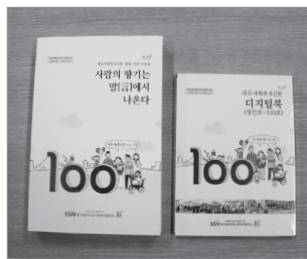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기념... 800개 지면 담은 디지털북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 발행을 기념해 시론·칼럼 모음 단행본 「사람의 향기는 말[言]에서 나온다」와 「제주사회복지신문 디지털북(창간호~100호)」를 출판했다.

시론·칼럼 모음 단행본 「사람의 향기는 말[言]에서 나온다」는 제주사회복지신문 전·현직 편집위원 19명이 신문에 게재한 원고 187편을 엮었다. 오

피니언면에 실려 온 시론과 칼럼은 매월 사회복지계의 흐름을 짚을 수 있는 주제 및 다양한 시선으로 삶을 관조하는 내용 등을 다뤘다.

디지털북은 지난 9년간 발행된 제주사회복지신문 100호의 800개 지면, 3803건의 기사를 DVD에 담아낸 것이다. 디지털북은 단어 및 페이지 검색을 통해 지역 복지현장의 기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고치환 회장은 "도민의 격려, 사회복지현장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가 100호까지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힘"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신문 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모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과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8월 9일~10일 제주 뉴코리아 유스호스텔에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아동 스스로 모니터링하는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캠프에 참여할 제주지역 아동 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0~18세(초5~고3) 아동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6월 6일까지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캠프에서 참여한 아이들은 아동권리 문제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이후 3개월 간 지역사회에서 자신과 친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구체적인 옹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문턱은 낮게! 시선은 같게! 사랑은 높게!”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한장애인대상에 이동근씨



▲ 지난달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동근씨가 장한장애인대상을 수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회장 양예홍)는 지난달 20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도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의 장애인인권헌장 낭독으로 시작해 유공자표창, 기념사, 격려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이동근(52세) 씨가 장한장애인 대상, 최은미(56세) 씨가 장애인어버이대상,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회장 이희숙)이 장애인도우미 대상, 김양희(45세) 씨가 장애인복지특별상을 수상했다.

청각장애 1급인 이동근 씨는 가구제작 등 전문가 격증 취득 및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대회 입상 등의 활동으로 자활자립의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적장애 자녀를 둔 최은미 씨는 유진특수아교실 및 유진주간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한 점, 교육자원봉사활동 등이 공로로 인정됐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한미모로타리클럽은 2007년부터 매해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에 동참하며 장기기증 및 신장장애 예방 홍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에 참여해 왔다.

김양희 씨는 지적장애 1급에도 영송학교 고등부 졸업, 안정된 직장에 취업 및 독립적 생활을 하는 등 다른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 열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보장이다’ 2016년도 제8회 여성장애인폭력추방주간 캠페인이 지난달 14일 제주시 동문로터리 산지천광장 일대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캠페인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상담소권역 및 여성장애인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주최하고, 여성장애인폭력 추방 주간 캠페인 공

동기획단(36기관)이 주관했다.

캠페인 행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예방 탈 인형극 극단 ‘예그리나’의 공연으로 시작해, 이은희 도보건복지여성국장, 현정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의 격려발언도 이어졌다.

또한 행사에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 낭독도 진행됐다.

‘제3회 가족사진공모전’ 개최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허찬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제3회 가족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행복이 담긴 우리 가족 사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응모방법은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에서 ‘사진공모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사진파일과 함께 이메일(piyoop@nate.com)을 통해 1인당 3점 이하 사진파일을 보내면 된다.

입상자는 오는 22일 제2회 가족문화대축제에서 시상하고, 입상 작품은 축제 기간 동안 전시될 계획이다. <문의: 725-8005>

장애인의 날 특집 인터뷰

“사회복지 관련 서적 눈에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한 김태희씨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단어를 문자가 아닌 그림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아인들의 학습이 건청인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그녀의 자격증 취득 소식은 그래서 더 빛난다. 지난달 15일 의사소통과 정보취득의 제약에도 당당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김태희(제주도농아인협회 간사, 31세) 씨를 만났다.

청각장애 2급인 김태희 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농아인협회에서 일을 처음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맡아야 할 복지행정 업무는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그렇게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던 그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복지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사회복지 공부는 인터넷 강의로 했어

요.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입모양과 자막, 모르는 단어는 사전의 예문을 찾으면서 최대한 이해하고 느끼려 노력했어요.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서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읽었죠”

그녀는 그렇게 시작한 사회복지 공부로 2년전 사회복지사 2급을 따고, 또 다시 1년 만에 1급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을 꼽아 달라는 물음에 주저 않고 직장동료들을 꼽았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직장 동료들이 업무를 조금씩 분담해 주면서 배려해 줬어요.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녀가 맡은 업무는 농아인상담 및 사례관리, 수화경연대회, 농아인문화축제 등 모두 청각장애인을 돕는 일이다. 그녀는 일을 시작하면서 꿈을 찾았

다고 전했다. “무대에서 수화통역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요. 그 사이 농아인들에게 통역이 필요했죠. 그때 제가 발표자의 입모양을 보고, 수화로 통역한 적이 있어요. 눈으로는 발표자의 입을 보고, 손은 농아인을 향했죠. 의미 전달이 충분히 이뤄졌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자격증 취득으로 많은 격려도 받았고 자신감도 얻었어요. 앞으로도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많은 것들을 배워보고 싶어요”

베트남 장애인지원협의회와 교류 협정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임태봉)는 지난달 18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빈풍성장애인지원협회·평안밀알복지재단베트남지부와 해외 교류·연계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도사회복지사협회는 협약을 계기로 해외프로보노 연수단을 파견하고, 월남



전쟁피해자 빈풍성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을 포함한 시설 관계자들과 다양한 교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 진행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제주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늘푸른, 봉아름, 용담, 이호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2016년도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30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종합심리검사를 받았



으며 5월부터는 아동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소/식/마/당

개원 9주년 기념행사 개최



제주케어하우스(원장 홍영진)는 지난달 1일 이용자, 봉사자,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 9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창립 9주년을 기념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홍영진 원장은 “제주케어하우스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터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손길을 모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모 아카데미 원예교실 프로그램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2016년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달 총 4회기에 걸쳐 ‘부모아카데미 원예교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장애인자녀 양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해소 및 삶의 활력 부여, 역량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봉사활동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과 (주)해진이엔씨 직원들은 지난 3월 26일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마음! 행복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시설 내에 지난 겨울동안 쌓여있던 창틀의 먼지를 닦아 내는 등 봄맞이 청소 및 단장을 위한 노력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용장애인들을 위한 정성이 담긴 후원물품도 전달했다.

자매결연 봉사회와 김치담그기 참여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달 17일 자매결연 자원봉사 단체인 초아적십자가족봉사단(회장 이상영)이 주관하는 김치담그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정혜재활원 거주 장애인들과 초아적십자가족봉사단 회원들은 100포기의 김치를 함께 담그며 이야기도 나누고 직접 만든 김치를 서로 먹여주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꽃내음 가득! 행복 가득! 봄꽃나들이



제주양로원(원장 신현권)과 제주요양원(원장 전재현)은 지난달 2일 기아자동차(주)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재훈)의 지원을 받아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 직원 등 총 80명이 함께 한림공원과 금능석물원으로 봄꽃나들이를 다녀왔다.

기아자동차(주)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나들이를 위해 100만원을 후원했으며, 임직원 20여명은 나들이에 동행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소규모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7일 협의회 회관에서 장애인거주시설과 그룹홈 등 소규모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를 열었다.

박경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 장애인거주시설 분과위원장의 강의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종사자 47명이 참석해 시설평가 과정에 대해 질의응답하며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류준열 갤러리, 자전거 5대 기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유근)는 지난달 21일 제주시청 제2청사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류준열 갤러리’를 통해 기부된 자전거 5대를 보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자전거를 선물로 받은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나 갖고 싶어했던 자전거를 이렇게 선물로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진행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원장 김정숙)는 이용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 감수성 향상을 위해 미술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미술전문강사의 교육 아래에 연말까지 실시 될 예정이다.

문화스쿨 프로그램 참여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 거주인 8명 및 이용자 7명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정미숙)가 주관하는 문화스쿨 프로그램에 지난 3월 25일 참여했다.

이날 이용자들은 스스로 오카리나 연주, 케이크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취감을 느꼈으며, 봉사자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유대감 형성 및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도 참여했다.

장애인 체력 단련하는 수영교실 운영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제주시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매주 목요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水ports, 수영! 우린 요즘 물 만났水~II’ 수영교실을 진행한다.

체력단련과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수영교실은 전문수영강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건강한 가족분위기 만들기 프로그램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원식)과 제주시서부보건소(소장 서정학)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분위기 만들기의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멋진 가장’ 아버지밴드를 결성했다.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일반가정 등 총 11명의 아버지들이 참여하는 아버지 밴드는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며 건전한 여가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도남동 체험홈에서 축성식 열어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 신부)은 지난달 15일 이용자와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남동에 위치한 체험홈의 축성식을 가졌다.

도남 체험홈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남자이용자 3명이 직업재활훈련과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각종 훈련을 하게 된다. 이로서 제주애덕의집은 지역사회 내 체험홈 3곳과 자립홈 2곳을 운영하게 됐다.

시론

정명(正名)의 달 5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김범훈
(사)Geo-Jeju 연구소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4월22일 발표한 주례조사 발표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일주일 전보다 10% 포인트나 급락한 29%로 내려앉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독선과 독단이 결국 소통 미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의 아이콘인 ‘불통(不通)’이 지지율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여권에서도 여소야대라는 국민의 매서운 심판으로 귀결된 4·13 총선 참패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심지어 새누리당 상임고문 들조차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여당 원로들의 고언마저 이 정도라면 시중 여론은 짐작하고도 남을 터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에 부응하는 대대적인 국정 쇄신책보다는 정해진 일정만을 소화하고 있다. ‘마이웨이’만을 고집하며 미동도 하지 않는 작금의 상황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그럼에도 지난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들과의 간담회 결과를 지켜보았다. 위기는 기회이고, 기회를 만드는 것은 변화와 혁신이며, 소통은 변화와 혁신의 방향을 제대로 찾아 가는 과정이기에 박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04년 ‘천막 당시’ 때의 결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그러나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전부였다. “내 자신부터 변화하겠다”는 반성도 고민도 없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점심 먹는 자리였다.

일찍이 공자는 ‘올바른 정치’에 대해 “군군(君君), 신

신(臣臣), 부부(父子), 자자(子子)”라고 설파했다. 임금(君)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다. 각자 자신의 역할, 즉 제 이름값에 충실할 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정명(正名)을 강조하고 있다.

임금부터 임금다워야

그렇다면 우리사회에 절실한 정명의 우선은 무엇일까. 임금부터 임금다워야 한다는 ‘군군’이 아닐까 싶다. 예로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했다. 그럼으로써 ‘군군’→‘신신’→‘부부’→‘자자’로 이어져 각자의 역할이 확립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가정의 달 5월을 맞는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1년 12개월 가운데 유독 기념일이 많다. 모두가 제 이름값을 다짐하기 위한 날들이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달, 싱그러운 5월이라고 애창한다.

정명의 달 5월을 맞아, 대통령부터 반성함으로써 모두가 제 이름값을 찾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기고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준비하며



김동익
제주시청 경로복지담당

올해로 어버이날이 마흔네번째를 맞는다. 우리나라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해 기념해 오다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각종 기념 행사를 열고 있다.

과거 의식주 해결에 급급했던 50~60년대 우리부모님들은 새벽부터 밤늦까지 농사일과 자식 뒷바라지에 열과성을 다하며 배움과 학교진학에

매진하셨고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의 기치아래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왔음이 사실이다.

이렇게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해오신 부모님들을 조금이나마 위안하고 즐겁게 해드리고자 정부에서 ‘어버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5월 8일 자녀들이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효도여행 등도 보내 드리고 했던 행태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핵가족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현대사회에서는 효성이 담긴 마음적 위안보다 용돈이나 건강기능식품, 안마기 등을 택배로 부치는 등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많아 필자는 씁쓸한 심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오는 8일이 일요일과 겹침에 따라 5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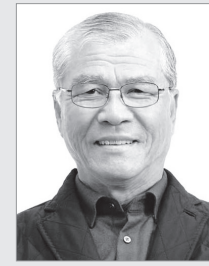
금요일 한라체육관에서 5000여명의 어버이를 모시고 간소한 기념식과 함께 모범적효행자, 장한아버이 등의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난타, 예술단 공연, 노래자랑을 통해 친교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나깨나 자식걱정으로 편할날이없었던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다함께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새마을부녀회에서 급식제공 봉사활동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조성하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칼럼

기부왕·기부마라토너



김길웅
시인·수필가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다. 그가 세계 최고의 기업가요 부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한데 그가 세계 최고의 기부왕이라는 걸 알고 나면

또 한 번 놀란다.

부자와 기부는 뭔가 이가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 온 사회적 통념 탓이다. 돈은 가질수록 집착하게 되면서 움켜쥐려고 든다. 수전노란 말이 그래서 나오고, 그 돈을 죽을 때 갖고 가려고 하느냐는 비난도 그 때문에 나온다.

빌 게이츠, 놀랍게도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체제부터 인터넷까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준 장본인이다. 한데 그는 다르다. 그렇게 해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 왔다. 혼자 행복한 것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그냥 기부가 아니다. 통 크게 사회에 환원한다. 아프리카 말라리아 백신에 100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5세 이하 어린이 8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돈이라 한다.

또 흥미로운 기부가 있다. 그가 개발하려고 강력히 요구한 기술이 개발됐다 한다. 바로 30m 밖에서 1초 당 모기 100마리 이상을 죽일 수 있는 장치다. 그것을 이용해 말라리아모기를 박멸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돈으로 죽어 가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호천사다.

혼자 행복한 것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꿈꾼다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나보다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느냐, 그것으로 측정되는 것이다”

우리 가까이에도 기부천사는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그들. 매일 1만원씩 모아 매년 365만원으로 무료급식을 돕는가 하면, 사이클 1km 완주할 때마다 두 사람이 약속으로 모은 돈 1000만원을 루게릭요양원 건립기금으로 지원한다.

정혜원(탈런트·선(가수) 커플. 자녀 넷을 두고 있는 연예인 부부.

이에 앞서 홀트아동복지회에 8년 간 8억 원을 기부했고, 연말 연탄 기부, 해외아동 일대일 결연이며 각종 장기 지원까지 해온다. 이쯤 되면 기부가 거의 마라톤 수준이다.

“한번에 10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은 많아도 일 년에 1만km를 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선이 철인3종 경기 참가를 앞두고 전한 소감이다. 그의 목소리엔 기부철학이 스며있다.

몇 천만 원 기부 소식을 듣기 힘든 요즘이다. 빌 게이츠가 기부왕이라면, 이들 부부는 기부마라토너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김정현 자문위원장

“‘사회복지사’ 직업에 보람... 늘 자부심 느껴요”

1급 자격증 도내 1호...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탄생 산파 역할

종합복지관에 전국최초 ‘장난감 도서관’ 열어 사회복지계 한 목소리 ‘복지 아젠다 포럼’ 중요

‘사회복지’ 라는 말조차 생소했을 시절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에게 남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물었더니 “내 성격이 뭔가를 포장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탓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그의 호탕한 성격을 내비친다. “당시 본고사 필수과목 중에 제일 자신 없었던 수학과목을 시험 보지 않는 곳이 중앙대학교 문과대학이었고 그 중 선택할 수 있었던 학과가 사회복지학과였다” 고 한다.

식구가 된다. 전국 조직으로 불우이웃결연사업을 주업무로 하던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는 당시 제주도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동일내과의원 이동일 원장이 명예직으로 지부장을 맡고, 의원 입원실 한 칸을 사무실로 사용해야 했다. 제주지부 과장으로 재직한 지 1년쯤 되던 해 이동일 지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김 위원장이 전국 최연소 지부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당시 그의 나이 34세.

1985년 9월에는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가 제주지역 1호 사회복지관인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 문을 열게 된다. 공교롭게도 제주도 사회복지사 1급 1호의 주인공이 제주도 1호 사회복지관의 초대 관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사회복지관은 가급적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등의 분명한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해요. 그런 고민 속에서 전국 최초로 복지관에 문을 열었던 ‘장난감 도서관’ 은 가장 큰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탄생에 산파 역할을 담당한 만큼 협의회 운영에 대한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한때는 협의회가 직접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협의회 입장에서 직접사업을 하지 않으면 누가 협의회 존재를 인정해주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직접사업을 한다고 해도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 하고 있거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협의회만의 특성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거죠. 그런면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푸드뱅크사업도 협의회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지역사회

30년 전, 제주사회복지협의회가 탄생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정현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장, 제주사회복지사업회장, 제주지역사회복지협의회 대표협의체 초대 공동위원장, 제주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장, 제주종합사회복지관장,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그의 이력이 말해주듯 제주지역 사회복지역사의 궤적과 함께 해 온 김정현 위원장을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세 번째 인물로 만나보았다.



복지현장 곳곳에서 활동한 마당발 이력의 소유자다. 그만큼 조직운영과 사람관리에 능하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제주지역 사회복지기관들이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관간의 공식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기관에 속한 개인들간의 관계형성이 중요해요.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기 때문이죠. 그런면에서 협의회장과 복지사업회장, 모금회장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시설·단체협의회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5년 사회복지시설장과 종사자 1천여명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

다 포럼’ 이 운영되는 것을 지켜본 그는 “사회복지계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결집력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사회복지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경험을 후배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제는 사회복지현장을 떠나 후배 사회복지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는 그에게 사회복지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부탁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둘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셋째, 나는 최선을 다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며 당당하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과 적성에 맞아야 일이 즐겁고 타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잊지 않아야 하고, 이왕 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처럼 말이죠.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보람된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사회복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가로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리 - 김성건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1991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열린 자원봉사자교육에서 김 위원장의 모습.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그에게 주어질 자격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 당시만 해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거나 고교 졸업 후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자격증’을 발급한 것. 그 후 198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생기고 종사자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 후 사회복지현장 근무경력을 쌓으면서 1급 자격을 취득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얻게 된 ‘제주도 사회복지사 1급 1호’ 라는 타이틀을 그는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간직하고 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1972년 대학시절 실습을 통해 인연을 맺은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이후 홀트아동복지회 소속으로 제주와 부산에서 사회복지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그러던 중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가 문을 열게 되고 김 위원장은 제주지부 설립 멤버로 한국어린이재단의



▲ 1992년 제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한 김정현 위원장(뒷줄 왼쪽 두번째)

며 종합운동장에서 탑동광장까지 행진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진심을 다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토론하며 뜻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복지 아젠

시설탐방

(77)성지요양원

“돌봄은 사랑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냄새와 소리, 인권에 귀기울이는 요양원 지역과 소통하는 ‘지역의료복지시설’ 추구



▲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성지요양원은 매월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식사 및 공연관람, 건강검진 및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돌봄은 사랑입니다’ 성지요양원(원장 송창권)의 시설운영 방향은 간단하지만 명료했다. 송창권 원장은 사랑없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것은 폭력과 같다고 말했다. 요양원이 단순하게 육(肉)적 케어만을 하는 곳이 아닌,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 인생을 마무리 하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곳, 성지요양원을 지난달 14일 찾았다.

제주시 외도동에 위치한 성지요양원은 제주성지교회로부터 부지를 출연 받아 2007년 5월 개원한다. 성지요양원의 설립은 지역의 병약한 어르신을 섬기기 위해 시작했다. 그렇게 입소정원 50명인 규모의 요양원에서 시작해, 지난 2014년에는 요양원을 증축해 정원을 76명으로 늘렸다. 현재 요양원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

치료사, 영양보호사 등 47명의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고 있다.

성지요양원은 ‘요양원 하면 폐쇄적’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없애고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지역 어르신과 아이들, 지역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지역의료복지시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어르신을 초청해 식사를 같이하고 공연도 함께 보며,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입소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방문한 어르신과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생일 잔치에는 성지어린이집 아이들이 찾아와 장기자랑을 펼쳐 보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의 웃음과 눈물을 보인다.

또한 최근에는 나눔숲 사업으

로 요양원 앞뜰에 약 300평 규모의 식물원 ‘사랑뜰’을 조성했다. 사랑뜰에는 40여 종의 교목, 관목 초화류 등을 심었으며, 관광객과 주민, 어린이들에게 개방해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하나, 요양원의 장점 중 하나는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실내 전체를 유니버설디자인에 맞춰 설계했다는 점이다. 실내 모든 곳에 턱을 없애, 어르신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고, 화장실에도 보일러를 틀어 어르신들이 스스로 사용해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성지요양원은 냄새와 소리, 그리고 인권에 민감한 요양원이다. 어르신들이 생활하며 느끼는 작은 작은 불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더욱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케어는 헬퍼’라는 명제

아래,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요양원은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성실’과 ‘성의’가 중요하다.

송 원장은 “케어는 직원의 수준과 같다. 그만큼 직원의 역량이 중요하기에, 적극적으로 직원의 복지와 교육 지원에 나선다”며 “직원들이 진학을 할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고 있으며, 해마다 직원들을 위한 국내의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31

몰래 녹음하면 처벌을 받을까?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대화나 통화를 손쉽게 녹음할 수 있게 되었고 녹음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문의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에 녹취록은 강력한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과연 허락 없이 녹음을 하고 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

우리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17조 역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통신과 사생활 영역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

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하며 위반시에 무거운 처벌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몰래하는 녹음은 불법이 된다.

◆ 모든 녹음이 불법은 아냐

그런데 몰래한 녹음이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대방과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함에 대하여 동의를 얻지 않고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버튼을 눌러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을 규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녹음시 사실 고지 필요

이는 전화 통화 만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화 상대방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더라도 본인이 대화 참가자인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녹음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몰래하는 녹음이 적법하고 무조건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몰래하는 녹음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우리 법원도 최근 판결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명한 바 있다.

가급적 녹음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